

'증심사 입구역' 역명 재심의 갈등

철도공사, 재심의 청원 계속되자 여론조사 불교계 "원칙없는 행정으로 주민 분열" 비판

광주 지하철 '증심사입구(학동삼거리)역' 명칭변경을 두고 시민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갈팡질팡하는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원칙 없는 행정 때문이다.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오형환)는 6월 27일 "지하철 1호선 역사 가운데 증심사입구역과 도청역, 호남대입구역 등 3곳의 역사 이름 변경을 위한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광주불교사안연합회,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는 종교인 모임은 6월 30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역사명과 상징성을 고려해 결정한 역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광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며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역명 재심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역명 변경 심의 발표에 따

른 우리의 입장'에서 "지난 2003년 특정종교에 편향된 인사와 일부 주민들의 요구로 여론조사를 거쳐 2004년 3월 시의회에서 '증심사입구역' 명칭을 '학동삼거리'와 병행키로 최종확정했다"고 밝히고 "역명을 다시 논의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분열시키고, 종교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역명변경을 다시 논의한다면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논의해야하는 잘못된 관행을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2년 전 역명변경 부결처리이후에도 재심의 청원과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오는 11일 역명변경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광주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정종교인과 일부 주민들은 현행



현재 학동삼거리역과 증심사역명을 쓰고 있는 증심사입구역.

'증심사입구(학동삼거리)역' 역사명에서 '증심사입구' 명칭을 삭제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준엽 기자



김제 금산사는 김제 벽성대학교 협정을 맺고 전문 복지사 양성에 나섰다.



해남 대홍사는 전주한옥마을을 생활체험단과 손잡고 지역불교일터에 앞장선다.

사찰-대학 · 민간단체 상생 모색

불교가 대중과 호흡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는 가운데 지역 사찰이 대학, 민간단체와 손잡고 상생을 모색하고 있다.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는 지난 7월 5일 전북불교회관 강의실에서 김제 벽성대학교(학장 류재경)와 전문 복지사 양성을 위한 종학(宗學)협약을 맺고 대학의케어복지과 운영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산사는 2007학년도케어복지과 신입생 모집에 참여하며 인력, 정보, 장비 등을 공유한다.

이날 '종학협동 협약서' 서명에 앞서 원행 스님은 인사말에서 "사회복지는 불교의 으뜸가는 실천행이자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다"며 "지역에서 활동할 복지인력 양성을 위해 사찰과 대학이 연대할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불교복지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고 말했다.

금산사가 벽성대학교와 상호협력하게 될 케어복지는 사회복지학에 보건의료학을 접목한 사회복지의 새로운 모델로, 벽성대학교가 2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케어복지과를 졸업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케어복지사 1급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금산사는 오는 9월부터 신입생 수시모집에 들어가며, 복지 복지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장학혜택으로 학업문턱을 최대한 낮춘다는 방침이다.

해남 대홍사(주지 몽산)도 7월 4일 보현전에서 전주한옥마을 생활체험단(단장 김병수)과 '한국전통문화 체험 교류사업 협약식'을 맺었다.

전주 시청과 해남 군청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날 협약식에는 대홍사 주지 몽산, 수련원장 법인, 문화사업단장 설두 스님과 전주한옥마을체험관 김병수 관장, 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이종민 단장 등 전주한옥마을을 대표해, 해남 황산면 서해면 면장, 전주시 문화지원과 조희숙 계장 등 관공서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제 금산사	해남 대홍사
벽성대학교 宗學 협약	전주한옥마을을 체험단과 전통문화 교류사업 추진
케어복지과 운영 동참	

이 자리에서 대홍사 주지 몽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대홍사와 전주한옥마을은 한국 문화의 전부라 할 수 있는 불교와 유교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다"고 규정하고 "서로 손잡고 세계에 우리 것, 우리 정신, 우리 삶을 있는 그대로 알리자"고 강조했다.

대홍사 문화사업단장 설두 스님은 "대홍사는 2002년부터 새벽순례이라는 특화된 브랜드로 템플스테이를 운영해 그동안 1000여명이 참가했다"며 "내국인에 의존하던 템플스테이를 2009년까지 외국인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홍사는 전주한옥마을의 외국인 체험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체험단을 상호교류할 예정이다. 또한 전주한옥마을과 공동으로 5개국어로 된 안내책자와 팸플릿을 제작해 10월부터 유람을 시작으로 세계 관광박람회를 순회한다.

글·사진=이준엽 기자

육천 대성사 초청 자원봉사 릴레이 청성초등전교생 과학관 견학



내륙의 오지인 충북 옥천군 청성면 청성초등학교 전교생 75명이 7월 6일 대전중앙과학관 나들이를 떠났다.

육천 대성사 주지 해철 스님이 '종교단체 자원봉사 릴레이'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을 초청한 것. 충북도와 옥천군 자원봉사센터도 힘을 보탰다.

육천 대성사에서 김밥과 차, 과일을 먹은 뒤 대전으로 출발한 어린이들은 국립중앙과학관내 기초과학관, 자연사관, 어린이 탐구관 등 곳곳을 돌며 다양한 영상과 첨단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했다(사진).

대성사 주지 해철 스님은 "오지의 어린이들과 지속적으로 인연을 맺음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박봉영 기자

화엄사 지역농산물 판매장 개장

구례 화엄사(주지 증삼)는 7월 15일 일주문 옆에 '구례 농산물 10대 전시 매장'을 설치하고 개원식을 갖는다.

이번 농산물 전시판매장은 화엄사가 시설을 무상임대하고 구례군농민회가 자체 운영한다. 매장에는 구례군농민회가 생산한 쌀, 오이, 우리밀, 산수유, 단감, 토종꿀, 녹차, 고로쇠, 산채 등 구례지역 농특산물 10종이 전시판매 된다.

화엄사는 농산물 판매장 개설과 함께 사찰 공양미를 구례군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바꾼다. 또한 사찰 홈페이지에 농산물 쇼핑물을 개설해 농민회가 직접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이준엽 기자

광주 불교 방송

BBS FM 89.7 MHz

www.kjbs.co.kr

무등산 풍경소리 15일 공연

광주 증심사(주지 진화)와 무등산보호단체가 개최하는 무등산 풍경소리 공연이 7월 15일 오후 7시 증심사 문화광장에서 열린다.

44번째 열리는 이번 공연의 노래스님으로 신인 여성포키 수니와 광주 엔시안오델 클럽이 출연해 서정미 넘치는 청정한 노래를 선보인다. 또한 이야기 손님으로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김인주 분부장이 나와 '유별난 무등산 사람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준엽 기자

제주 불교계, 현실문제 참여 선언

제주불교총연합회 산하 제주불교사회문화협의회(의장 종호가)가 7월 5일 "제주사회의 현실문제에 불교계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불교사회문화협의회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제주의 사회, 문화, 경제, 도민생활이 도민의 판단으로 결정된다"며 "제주의 사회문화역량을 강화해 문화수준이 높은 제주특별자치도를 건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불교인의 세속적 이기심, 종교적 집단 이기심 증폭, 종교적 가치관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엽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충남동부지사 : (010)3069-3170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8월 5일개강

2006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고계대덕스님 및 교수님을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9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성당론 · 불교미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무전장스님(본대학학장) · 최봉수(동국대학교수) · 주명철(동국대학교수) · 최종석(금강대학교수) · 박 중(동산불교대학교수) · 최종현(동국대학교수) · 김주성(동국대학교수) · 차차석(동국대학교수) · 김상영(승가대학교수) · 정병조(동국대학교수)
2년 교과목	법회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박 중(동산불교대학교수) · 정영스님(승가대학교수) · 보각스님(승가대학교수) · 김형준교수 · 김희준교수 · 김호귀(동국대학교수) · 최종석(금강대학교수) · 윤원수(문화재단문위원) · 종정스님(승가대학교수) · 환안스님(금강선원총재)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 불교학과(200명) (100명) (50명) (50명) · 불교다도학과(30명) · 불교미술학과(30명) · 불교한문학과(50명) · 불교경제문화학과(30명)	불교를 적극 신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6년 6월 15일~ 2006년 7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경주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강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학과)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경제문화학과)	통산반은 지방계주자 출석수강이 어려운자

4. 입학일시 불교학과 : 2006년 8월 5일 (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 불교다도학과 불교미술학과 불교경제문화학과 : 2006년 9월 5, 6, 7일 개강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 서울 : 보현각 (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부대기아서점 051)865-4383 · 대구 : 상영불교서점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예전 수보리 센터 064)743-4184

* 특선시랑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동산불교대학

나무아미타불! 한국불교의 전통(傳統)을 이어, 정토세계(淨土世界)를 열자

제6차 전국 염불만일회 천년고찰 경주 불국사 성지대회

불국사 석가탑, 다보탑 나무아미타불! 탐돌이 합시다!!!

전국염불만일회에서는 1998년부터 염불 10대성지를 찾아 금강산 건봉사, 보성 대원사, 설악산 백담사, 해남 미황사, 팔공산 은혜사, 제주도 법화사, 충남 덕숭산 수덕사를 순례하였고 올해 2006년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천년고찰 경주 불국사에서 9차년도 염불성지대회를 개최합니다. 다시없는, 금생에 한번뿐인 이번 행사에 전국에 계신 염불만일회 회원과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2006년 7월 30일 ~ 8월 1일(2박 3일)
◆ 장 소 : 경주불국사, 석굴암
◆ 접 수 : 전화신청후 은행계좌입금 국민은행 023-21-0667-309 염불만일회 농 협 053-02-128104 염불만일회

◆ 동 참 비 : 개인직점불국사로 오실 분 8만원 · 서울에서 버스로 출발하실분 11만원
◆ 신청대상 : 개인, 사찰, 단체, 가족단위
◆ 문 의 : (02)732-1215~17 / FAX 732-1207

* 평소 염불수행을 원하는 신규회원 - 가입안내: 가입비 3만원(염불수천제공)
◎ 세계문화유산인 관계로 포시즌 호텔에서 숙박합니다.
◎ 전국염불만일회 불국사 성지대회에 동참하실분은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全國念佛萬日會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번지 동산불교회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